

샬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아프리카 우간다'입니다!

4월 한 달도 평안하셨는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지난 달 소개해 드린 '브렌다'는 추가 진료들과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예전처럼 활발하고 왕성하게 활동하진 못해서 자원봉사는 못하지만 밥퍼 시간에도 걸어와서 자원봉사하는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방학기간 동안 더 잘 회복 되어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2학기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는 '브렌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중보기도 부탁 드립니다.

중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면서 1학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성적표가 나오는 날 곧바로 밥퍼센터에 가지고 오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표를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성실히 출석했는지, 또 지난 학기에 비해서 성적이 올랐는지를 알 수 있고, 방학 때마다 실시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교육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적이 많이 향상된 아이들은 격려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경제활동을 하셔서 학비를 후원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후원금의 소중함과 함께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성적을 제대로 산출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주관식 문제인 이곳 시험은 선생님들이 일일이 검토하여 채점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따라서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시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목은 시험을 안 본 것으로 0점 처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성적처리를 보고도 대다수의 아이들은 선생님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2017년에 처음 확인하게 되었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의 대변인이 되어 잘 못된 것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이들도 점차적으로 잘 못된 것을 스스로 선생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이번 학기에도 성적이 잘 못 나온 아이가 있었고 그 남자 아이는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설명 없이 선생님의 체벌이 이어졌고 계속되는 체벌과 억울한 마음 가운데 그만 선생님 앞에서 성적표를 찢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했고 엄마와 새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데 엄마는 허리가 아파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친아버지에게 배운 기술로 본인 스스로가 진흙으로 흙벽돌을 만들어 팔던 아이입니다. 이런 가정상황을 잘 알고 한창 사춘기를 보낼 나이인 것을 잘 알기에 그 마음과 감정에는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하지만 선생님 앞에서 성적표를 찢는 행동은 잘 못된 것이니 당장 선생님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아이를 센터에서 학교로 돌려 보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에게 용서를 구했고 성적표도 재발급 받았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의 마음의 쓴 뿌리들이 온전하게 치유되면 참 좋겠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걷는 청소년 시기는 세계공통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태도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주장하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더 많이 쓰고 더욱 잘 교육해야 함을 느끼는 한 달이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의 네 번째 소식으로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서의 서신을 보내 드립니다.

● “사랑나눔이 최고야”

제주영어마을교회의 사랑나눔 목장에서 2018년에 귀하게 후원해 주신 150만원으로 먼저 교과서를 구입하면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석한 중학생들이 정말 행복하게 공부했고 지금도 교과서를 열심히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6일 정식으로 밥퍼센터 안에 작은 도서관과 공부방을 오픈 했습니다. ‘사랑 도서관’과 ‘나눔 공부방’은 이곳 ‘루간다어’로는 TWAGALANE(투와갈라네) LIBRARY, TUGABANE(투가바네) STUDY ROOM 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 보호자들에게는 교과서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36명 중에 1명 만이 교과서 1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한 교실에 130명 가까운 학생들이 앉아 있고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습니다. 그리고 앞자리는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두운 교실에서 칠판에 한 번 적히고 지워지는 수학공식, 화학공식, 영어단어 등을 제 시간에 제대로 외우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밥퍼센터에 오면 얼마든지 교과서를 볼 수 있어서 설령 학교 칠판이 지워져 못다한 필기내용이 있어도 아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과 열람실이 생겨서 학교 길에도 센터에서 공부할 수 있고, 집에는 전기도 책상도 없지만 이제는 환한 불 빛 아래 책상에 앉아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니 지금은 반에서 2등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나눔 목장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 사용에 대한 OT 실시〉



〈사랑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나눔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감사 드립니다. 사랑나눔이 최고야!〉

● “2019 년 첫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과 새롭게 시작하는 컴퓨터 교실”

2019년의 첫 번째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에 실시된 세 번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고 자리를 잡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완성된 도서관과 열람실을 통해서 맘껏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기존의 성경, 영어, 수학 수업에서 더 나아가 컴퓨터 교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서신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 시대에서 빈부의 격차만큼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줄여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중학생들이 대부분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컴퓨터 수업은 있지만 1대 밖에 없는 컴퓨터를 작동하지는 않고 칠판에 내용을 적고 이론 수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먼저는 가장 기초가 되는 컴퓨터 타자 수업과 연습을 통해 아이들이 평균 150타를 칠 수 있게 하고, 인터넷 사용 방법을 알려주어 이메일 계정, 페이스북 같은 SNS 계정을 만들고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그림판을 이용해서 그림도 그려보면서 마우스 사용에 대한 능력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한 달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 시간 동안에 참가한 60명의 청소년들이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하며, 영어, 수학, 물리, 컴퓨터 교실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능력도 많이 향상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이 청소년 프로그램과 함께 여성 문해교실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패드를 이용한 기초 토도수학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15명 내외로 아이들을 선발하여 시범교실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센터에 도서관과 컴퓨터 교실이 설치가 되면서 보안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신학교, 학교들도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데 어김 없이 도둑을 맞고 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퍼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신학교도 작년 연말에 컴퓨터를 도둑 맞은 사례도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면 안되지만 소중한 후원으로 마련한 귀한 장비들을 허망하게 도난당하면 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실과 센터 주요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취약한 야간, 새벽 시간에 경비도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CCTV 설치에는 300만원(\$2,700)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재정이 잘 후원 되어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 취하면서 더욱 안전하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응원해 주시고, 널리 알려 주시며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차드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프란시스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학 수업〉



〈아이패드를 이용한 수학 교육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



〈리타와 함께하는 영어 수업〉



〈넬슨 선생님과 함께하는 컴퓨터 교실〉



〈컴퓨터 교실에 몰두하는 중학생들〉

● “더욱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아프리카 하면 북으로부터 나오는 흥겨운 리듬과 함께 정열적으로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저희가 만나고 교육하는 우간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매 주 토요일 밥퍼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30분씩 찬양을 하는데 여학생들은 주로 찬양을 부르고 남학생들은 4가지 각기 다른 종류의 북을 치면서 신나는 리듬을 쏟아 놓습니다.

루간다어 찬양뿐만 아니라 영어 CCM 찬양도 함께 부르는데요. 저희가 탄자니아와 우간다에서 경험한 바로는 건반의 유무를 떠나서 찬양 리더가 먼저 선창하면 다른 팀원들과 청중이 따라서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라 분위기에 따라 첫 음을 너무 높게 잡아 중반 및 후렴에서 수습을 못하거나 흥에 취해 북소리가 너무 커서 찬양소리를 덮어 버리고 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팀을 위해 한국인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두 주간 특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20년 넘게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딸이자 대학생인 김민하 자매님입니다. 우간다에서 생활하여 현지 문화와 우간다 찬양 스타일도 잘 알고, 실제 교회학교에서 우간다 아이들을 상대로 찬양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미 탁월한 교수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더 예쁘고 아름답게 노래하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찬양을 배우는게 좋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실제로 밥퍼 시작 전 찬양에서도 발성, 북소리 크기 등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아름다운 찬양소리가 계속 유지되고 더욱 좋아지길 소망하며 아이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하느라 수고한 민하 자매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팀과의 첫 만남 속에 인사하는 민하 자매님〉



〈처음 배우는 몸찬양에 몸이 들썩들썩 합니다〉



〈신나는 찬양에 맞춰서 율동을 배웁니다〉

●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4월에도 매주 토요일 마다 밥퍼 사역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 비가 덜 내리는 우기철이긴 하지만 그래도 토요일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도 있었고 오전 10시까지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밥퍼 시간에는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4월의 두 번째 밥퍼에서는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0명이 넘는 청소년 봉사자들이 밥퍼 봉사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 시험이 토요일로 잡히는 바람에 직업기술학교에 다니는 3명의 학생과 학비를 내지 못해 학교에서 시험을 못보게 한 2명의 학생들과 함께 밥퍼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매 주 봉사 오셨던 한국 분들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한 분도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저희의 SOS를 받고 한인교회 사모님께서 한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열 일 하셨습니다. 매 주 오셔서 땀 흘리는 손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4월에는 주우간다 대한민국 대사관의 하병규 대사님께서 자원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달 NGO 관계자들을 대사관저로 초청해 주셔서 식사하면서 사업 현장에 꼭 한번씩 방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지켜주셔서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인해 오늘도 밥퍼에서 아이들은 행복한 웃음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밥퍼!



<4 명의 봉사자와 기도로 밥퍼를 시작합니다>



<구슬땀 흘리시며 봉사하시는 하병규 대사님>



<오늘도 아이들에게 웃음꽃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1.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여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 받게 하옵소서.
주의 사명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옵소서.
2. 우간다 다일공동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3. 업무 진행 할 때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의 뜻과 길을 알게 하옵소서.
4. 서창우 간사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간다 사역을 감당케 하소서.
5. 밥퍼 센터 앞 도로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걸어오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아이패드가 우간다로 잘 도착하여 교육사업에 귀하게 쓰이게 하소서. 센터보안을 위한 CCTV 설치 재정이 잘 마련되게 하소서.
6.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교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며 학업에 더욱 정진하게 하소서.
7. 밥퍼 사역을 통해 아이들이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밥으로 만나게 하시고 자원봉사자를 보내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옵소서.



변창재 : cjbyun@hotmail.com

Cell : +256 771 072 382

카톡 ID : bcj337

이현신 : hslee0304@hotmail.com

Cell : +256 776 149 595

카톡 ID : hslee0304

다일공동체 홈페이지: www.dail.org

한국 후원계좌 : 467701-01-299261 (국민은행)

예금주 : (사)데일리다일

미국 체크 후원

Pay to : Dail Community of USA P.O.box 337

Suwanee GA 30024